

【 P1-2 】

초등학교 고학년의 외식에 대한 인식

류은순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Perception of eating-out on elder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Eun-Soon Lyu

Faculty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현대사회는 외식이 가정의 식생활에서 필수가 될 정도로 식품비지출에서 외식비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의 외식이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은 급속한 성장과 감정의 변화가 예민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식습관이 고정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의 식습관은 우리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이는 국내 식품재료의 수급과 같은 국가경제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외식에 대한 선호도 및 외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외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 6개 지역 특별, 광역시와 8개 지역 중소도시의 5,6학년 초등학교 1,777명(남학생 946명, 여학생 831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2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 V10.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식빈도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39.5% 2주일에 1번정도는 18.9%, 1주일에 1~2번 이상은 20.7% 이었고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유의적($p<0.01$)으로 1주일에 1~2번 이상 외식하는 빈도가 높았다. 외식하는 이유는 73.6%가 집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71.6%는 가족 행사로 함께 즐기기 위해서, 49.7%는 외식하는 것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아서, 24.3%는 엄마가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외식 시 선호하는 음식의 순위는 부모나 어른과 동행할 때는 갈비, 삼겹살, 불고기, 한정식, 자장면, 생선회, 돈가스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구나 혼자 갈 때는 떡볶이, 햄버거, 김밥, 라면, 치킨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 시 가고 싶은 음식점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40.5%, 뷔페식당이 25.8%, 한식당 10.0%, 피자점 5.6%로 나타났다. 외식을 선호하는 정도는 좋아한다가 62.3%이었고 외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좋다는 21.7%, 좋지 않다 13.1%, 잘 모르겠다는 17.2%로 나타났다. 서양음식은 좋아한다 10.7%, 좋아한다 37.2%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서양음식을 좋아하는 비율이 유의적($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양음식의 작은 섭취는 식습관을 서구화 시킨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렇다 31.6%, 그렇지 않다 26.7%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렇다는 비율이 유의적($p<0.01$)으로 높았다. 자신의 입맛의 서구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렇다 14.9%, 그렇지 않다 38.5%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유의적($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식빈도가 많을수록 외식에 대한 선호도 및 외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서 유의적인($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외식에 대한 선호도는 외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 및 서양 음식에 대한 기호도에서 유의적인($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서양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아동 자신의 입맛의 서구화와 유의적인($p<0.01$)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서양음식을 찾은 섭취 시 식습관이 바뀔수

있다고 인식한 아동들은 자신의 입맛이 서구화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의적인 ($p < 0.0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아동들의 가족과의 외식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외식과 관련된 건강 및 식생활 등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